

신안 다이아몬드 해역에 인공어초 투하 '바다 낚시터' 조성

자은·암태·안좌 등 해역에 400개...5년간 90억 들여 어류 서식지 조성 수산 종자 방류·어장환경 개선 병행...불법 어업·외지 선박 차단 감시도

신안군이 지구 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수산물 생태계변화와 개체수 감소 대책을 위해 수산생물들의 산란과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 400개를 집중 투하한다.

신안은 리아스식 같은 해안으로 많은 섬들이 형성되어 다종의 생물들이 서식하기 좋은 최적적인 곳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신안은 신비스러운 경관과 오염원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 취미생활 1위인 낚시객들에게도 최고의 인기를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계적 기후위기를 맞으면서 바다 생물들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다양한 어종의 종류도

갈수록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일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신안군이 이번에도 바다 수산물 생태계 현실을 들여다보고 신속하게 인공어초를 투하게 된 것이다.

이번 인공어초 투하하는 지역은 자은, 암태, 안좌, 팔금, 장산, 신의, 하의, 도초, 비금도 등이 연도·연륙하면 다이아몬드 모양이 형성되어 '다이아몬드 지역'로 불리는 주요 해역이다.

투하되는 인공어초는 조피볼락 산란의 서식장 조성 사업으로 1년차 예산 8억과 쥐노래미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 2년차 10억이며 5년간 총 9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인공어초뿐만 아니라 수산 종자 방류

와 어장환경 개선도 병행하여 개체수와 다량의 어종 종류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또 조성 해역의 관리 수면 지정과 함께 자율 관리공동체를 구성하여 불법 어업, 외지 선박 차단 등 자체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수산자원의 중요성도 알리면서 효율적으로 해역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다이아몬드 제도 해역을 앞으로 낚시산업의 거점으로 집중육성 할 계획이며, 유아객 유치로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어업소득의 구성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군은 지금까지 전북, 해상, 감성돔 등 총 44종의 3738만9000미 수산 종자 방류와 4만1058개의 어초를 투하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지난 20일 신안 하의 옥도~안좌 사치 해역에 다양한 어종들의 산란과 서식을 위해 인공어초를 투하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무안~목포 운행 버스 감축' 증차 방안 고심

무안군, 목포시와 손실분담금 분담 논의...자체 증차 방안도 고려

무안과 목포를 오가는 시내버스 운행이 감축되면서 무안군이 증차 방안을 찾고 있다.

26일 무안군에 따르면 목포시가 이날부터 무안을 오가는 시계 외 노선(108번, 200번, 800번)을 감축 운행하고 있다.

목포시는 무안·영암 등지의 시계 외 노선을 감축 운행하는 등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26일부터 시범 운행한 뒤 3월4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한다.

무안 시계 외 노선 108번·200번·800번은 이날부터 각각 3대, 7대, 3대 운행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해 4월 무안군에 108번·200번·800번 시계 외 노선에 대한 손실분담금을 분담하지 않으면 운행 대수를 기존보다 50% 감축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기존 운행된 시계 외 노선은 108번 4대, 200번

12대, 800번 4대 등이었다.

무안군은 시계 외 버스 손실분담금 지급은 전례가 없다는 의견이다.

시계 외 노선 이용자 상당수가 목포에 거주하거나 목포대·초당대 학생이라며 목포시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안군은 감축 운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기준 10억원의 손실분담금 가운데 하반기 부담금 5억원을 분담하겠다고 목포시에 제안했다. 시범 운행 기간을 포함해 바뀐 노선인 운영을 지켜본 뒤 주민 의견을 반영해 목포시와 손실분담금 분담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목포시의 노선 개편으로 인한 남양·오룡지구 노선 간소화와 시계 외 노선이 함께 축소된 영암군과 공동분담 여부도 연구용역과 협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손실분담금을 분담한다고 했는데도 무안군이 요구한 200번 버스를 8대가 아닌 7대 운행하면 주민 불편이 따를 것"이라며 "무안교통, 목포 시내버스업체, 목포시와 협의를 거쳐 무안군 자체적으로 증차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목포시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무안군 홈페이지, 9개 읍면 사무소 공고, 버스승강장 홍보물 배포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안군에서 200번 추가 증차 검토 등 목포시와 계속 협의하겠다"며 "무안군 장기발전계획까지 고려한 최적의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저출생에 영암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

지난해말 정원 충족률 48.9% 교사 1인당 아동 비율 완화

영암군이 낮은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탓에 올해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영암군은 최근 군청에서 '영암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4년 영암군 보육사업 시행계획"과 '어린이집 인가 제한·특례 인정 여부' '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심의회는 올해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영암지역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은 48.9%로, 전국 평균(72.2%)을 크게 밑돈다.

영암군은 내년 어린이집 수급 계획 수립 때까지 추가적인 어린이집 인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올해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완화하는 농어촌 어린이집 운영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영암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회' 참석자들이 어린이집 인가 제한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이에 따라 교사 1인당 아동비율은 0세 3~4명, 1세 5~7명, 2세 7~9명, 3세 15~19명, 4세 이상 20~24명으로 완화된다.

정원 21~39명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도 허용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상호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자를 바꾸기로 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해남 온라인몰 '해남미소' 매월 셋째 수요일은 '해피'

월 1회 농수특산물 50% 할인 '그린해피데이' 소비자 인기 폭발

해남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가 매월 진행되는 기획전 '그린해피데이' 행사가 대박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매월 세번째 수요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그린해피데이 행사는 해남미소 입점 농수특산물 중 일부를 하루 동안 50%정도 대폭 할인한다.

지난 21일 올해 첫 그린해피데이 행사에서는 단 하루만에 1억2000여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대박 행진을 예고하고 있다.

제철 농수산물이나 해남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명품 특산물을 대상으로 할인행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인기 상품들은 조기 매진될 정도로 소비자들



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린해피데이는 지난해에도 총 8억원 매출을 달성하며 소비자들 손꼽아 기다리는 인기 행사로 자리를 굳건히 해왔다.

해남군은 그린해피데이 행사와 함께 매월 1~3일 짝을 20% 할인판매하는 행사도 운영 중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에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행사를 마련했다"며 "더욱 알찬 행사로 해남의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퍼플섬, 보라색 착용하면 반려동물도 무료

신안군, 상반기 조례 개정...옷·소품 착용, 보라색 염색도 인정

신안 퍼플섬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면 앞으로 입장료를 추가로 내야 하지만 보라색 용품을 착용하면 무료 입장할 수 있다.

신안군은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퍼플섬을 찾는 반려동물에게도 입장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퍼플섬은 2021년도 세계관광기구의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됐으며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은 꼭 가봐야 하는 명소로 알려졌다.

섬에 들어가려면 입장료 5000원을 내야 하는데 보라색 옷, 모자, 신발, 우산, 스카프 등을 착용하면 무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관람객 95% 이상이 무료입

장을 하고 있다.

신안군은 올해 상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 반려동물에게도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라색 염색을 하거나 보라색 소품을 착용하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신안군 관계자는 "퍼플섬을 찾는 관광객과 반려동물 모두가 보라색에 동참하길 바란다"라며 "관람료 제로를 목표로 홍보 마케팅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오는 5월 라벤더 축제를 개최해 상춘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봄의 시작, 진도 신비의 바닷길에서~

다음달 11~13일 회동리 일원서 축제...체류형 야간 행사 등 다채

제44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3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봄의 시작, 신비의 바다에서!' 주제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명예문화관광축제인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바다가 갈라지는 신비한 바닷길 체험과 진도만의 민속과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군은 성공적인 축제에 위해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체류형 야간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체계적인 축제 준비에 나섰다.

특히 바닷길 햇불 행진과 복합매체(멀티 미디어) 레이저쇼를 신규 개발해 야간 콘텐츠를 강화한다. 또 대한민국 민속문화예술특구에 걸맞은 지역 고유의 민속문화 불거리와 체험부스 등을 확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간다는 전략이다.

3월11일 개막식에는 진도 출신 국민가수 송가인이 특별출연하고 12일에는 전국노래자랑 녹화방송을 행사장 일원인 가계 특설무대에 마련해 전국인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바닷길 만남 44세의 '견우와 직녀' 사랑의 선발대회와 뽕할머니 선발대회를 진행해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했다.

야간 콘텐츠인 바닷길 야간 경관조명과 멀티 미디어 레이저쇼와 함께 가계해수욕장 해변에 에어돔 등 피크닉 존을 조성해 쾌적한 축제장이 될 수 있게 만들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고 즐기고 만족할 만한 축제를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내실있는 축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kwangju.co.kr

해남군, 지난해 공공예금 이자수입 131억

전년보다 2.8배 증가...고금리·분산 배치 등 전략적 운용 성과

해남군이 2023년회계 결산 결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자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반·특별회계 53억원, 기금 78억원 이자수입이 예상된다.

이는 전년 이자수입 46억원 대비 85억원이 늘어 2.8배 이상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이자수입의 증가는 고금리 영향과 함께 유휴자금을 장단기별 정기예금으로 구분해 분산 배치하고, 중도해지를 최소화하는 등 전략적 자금운용으

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해남군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공공자금 운영 및 관리 계획 수립, 월별 자금수요와 예금이율 변동 현황을 수시로 분석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 담당자에 대한 자금 운용 교육과 예산 및 지출부서의 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으로 자금을 관리해 왔다.

해남군 관계자는 "철저한 금고 관리와 능동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이자수입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며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